

도, 바이오헬스산업 선도기업 육성 박차

기업 혁신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기술발굴 등 지원

도내 바이오헬스분야 기업 4개소 지원 예정

전북도가 도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021년 바이오헬스산업육성사업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탄소융복합 메디컬 One-stop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도 단위로는 유일한 연구개발 특구와 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안전성평가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이 소재하고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등 지역대학에서는 우수

한 연구인력을 지속 배출하는 등 풍부한 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바이오 연구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도내 기업이 산업 환경변화(기술발달, 코로나19, 시장수요의 다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도는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의 중계역할을 하는 '혁신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혁신 네트워크 플랫폼은 다양한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기술자문을 통해 기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 제조공정 개발, 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개발 협업을 지원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3월 중 지원기업 모집 공고 예정으로 총 4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분사, 공장, 연구소 중 1개가 도내 소재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개발, 잠재시장 규모가 큰 기술 보유, 시장진입단계 또는 시제품 설계·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

로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기업수요-공공기술 연계 기술 매칭·사업화 컨설팅 지원 2개소와 시제품 제작 및 신기술 인증지원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3월 중 모집 공고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jf.re.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10-6500)로 문의하면 된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본 사업이 도내 바이오헬스기업에게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이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남원시 선정·사업비 95.6억 투자

관광객 불편 해소·관광매력 높이는 미래관광 청사진 틀 마련

전북도는 2022년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대상으로 남원시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95.6억 원(국비 35, 도비 10, 시비 10, 민간 5.6)이 투자된다(관련기사 11면)

이번 공모사업으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광한루원 일원을 중심으로 특화된 지능형(스마트) 관광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해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도는 남원시 스마트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관광산업 혁신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관광 서비스 요구증대와 개인화된 스마트 관광 서비스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북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 스마트관광을 기반으로 해 ICT 융복합 기술을 시군 관광지로 확산, 관광매력성을 높여 전북 미래관광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스마트관광은 관광객 불편요소 분석과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생태문명 시대 여행체험 1번지 전북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도 관광객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화로 전북을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투표하고 테마체험관 관람하세요”

선거확인증 소지자,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 무료 입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 활용한 테마 체험 제공

전북도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 확인증을 소지한 모든 방문객의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체험관(이하 테마체험관)'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새 단장을 마친 테마체험관은 4차 산업기술 기반인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테마체험시설로 탈바꿈했다.

안쪽으로 뒤덮일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체험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게임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모아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층에서는 프리쇼 영상을 통해 지구의 블랙아웃(정전) 현상을 간접경험할 수 있으며, 2층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AR을 통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

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8개의 재생에너지(폐기물, 바이오, 지열, 태양광, 태양열, 해양 풍력, 수력)와 2개의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체험을 완료하면, 3층에서는 VR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그리드 미래도시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체험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테마체험관의 모든 체험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투표확인증은 투표 후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시·군·구 선관위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전투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하다.

투표 당일이나더라도 3개월 안에 투표확인증을 지참하고, 테마체험관에 방문하면 1회에 한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박차'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참여기관 방문

최창석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R&D 참여기관(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으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주), 리퓨터(익산), 무주군야초영농조합법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사업수행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와 R&D사업 평가 관리기관인 전북지역사업평가단이 함께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의 우수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연구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금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논의, 시설 견학, 기관(업)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및 (주)리퓨터는 각 1단계(18~20) 및 1.5단계(21~22) 연구개발사업에 총괄 및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농생명 관련 빅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스몰스마트팜 재배 시스템 구축, 약용작물 데



이더 서비스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주)리퓨터의 경우는 도내 지자체(순창군)에 스몰스마트팜 시설을 보급하는 등(18~20, 45억원) 성과를 이뤄냈다.

무주군야초영농조합법인은 기업 수요맞춤형 약용작물 생산 시스템 연구개발에 참여했으며, 특히, 천마복합 처방을 활용한 뇌 인지기능 개선 및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북도 스마트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관(업)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생명 관련 기업에 현장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경북 울진군 이재민 위한 긴급 물품 지원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생필품·간식 제공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오상)는 지난 8일 울진군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시름에 빠진 이재민과 산불 진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긴급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긴급 지원은 현장 자원봉사센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생필품 및 간식 3종을 전달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재난담당자들이 비상 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현장 피해 상황 및 자원봉사 추진현황을 공유하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상시 협력해 본격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즉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곰소액젓 우수성 입증

곰소액젓이 시판 중인 여타의 제품과 비교해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곰소액젓의 영양학적 가치평가 연구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하며, 영양 및 품질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안군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권익현 군수, 김광욱 곰소젓갈 협회장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듣고, 곰소액젓 명품화 위한 협력 의지도 다졌다.

이번 연구는 향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수행했으며, 곰소액젓과 시판 중인 국내 및 수입 제품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영양물질,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 ▲바이오제닉아민 등 성분 측면에서 곰소액젓이 천연 조미료로서 영양학적 가치가 높았다. 품질면에서도 국내외의 액젓과 경쟁

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바이오제닉 아민중 히스타민은 기준(200 mg/kg) 이내로 분석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향토제품인 곰소액젓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은 향토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전주모주에 대해 플라보노이드 등의 기능성분과 항산화능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자료를 공유했다. 올해는 완주 재래생강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역 특산제품 활성화를 위해 전주모주, 곰소액젓, 완주 재래생강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해 도내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확보하고,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